



Date : 22/06/2006

## The Rol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 the 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Libraries

**Lee Chi-Ju**

Director  
Library Service Departmen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Meeting:</b>	<b>117 National Libraries</b>
<b>Simultaneous Interpretation:</b>	<b>Yes</b>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72ND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

20-24 August 2006, Seoul, Korea

<http://www.ifla.org/IV/ifla72/index.htm>

2006

WLIC

## 도서관의 정보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립도서관의 역할

이 치 주(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장)

2006. 5.

## 1. 서론

인류문명의 발전에 있어 종이와 인쇄술의 발명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이와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류가 쌓아올린 문화유산을 기록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후손에게 남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도서관은 기원전부터 인류가 남긴 전적문화를 수집·정리·보존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오늘날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컴퓨터의 발전으로 종이를 대신 할 수 있는 각종 디지털 매체가 개발되어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 등 대중통신 수단의 발달로 정보를 신속·저렴하게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종이문화에 디지털 문화가 도입되어 기록문화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문헌 등 책으로 기록된 정보의 중요성과 더불어 디지털 정보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환경의 변화로 도서관에서 수집하고 편목하는 자료의 양적 측면이나 질적 측면으로도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내용도 달리하여야 하기에 그동안 한국의 국립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의 정보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2. 도서관 정보화 환경조성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79년 자동화 준비반을 조직하고 문헌정보처리기법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KORMARC를 개발하였다. 또한 국내문헌 정보에 대한 DB와 그동안의 전산화 경험을 토대로 도서관정보화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서관 전산망을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1989년 국가기간 5대 전산망 사업 중 하나인 “교육연구전산망” 사업에 도서관망 구축사업이 주요사업으로 책정되었고, 1990년 지역균형발전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정보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전국도서관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도서관정보망을 구축하여 문헌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장소와 관계없이 정보이용에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바탕을 두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부여된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 협력망의 총괄”이라는 법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단계 사업계획(1991년~1997년)에 이어 2

단계 사업계획(1998년~2010년)을 수립하고 국내 495개 주요도서관 및 해외의 문헌정보 유통기관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도서관정보망(KOLIS-NET : Korean Library Information System-Network)을 형성하여 문헌정보 DB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3. 도서관 정보경쟁력 강화 사업추진

#### 1) 문헌정보처리표준화도구 개발

DB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처리기법의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도서관 정보화는 문헌정보 요소들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다른 어떤 분야보다 처리기법의 표준화가 중요하여 문헌정보 전산화의 기본도구인 목록형식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처음으로는 단행본용 KORMARC 형식을 개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납본받는 자료의 목록DB 구축에 활용하다가 '91년부터 단행본·연속간행물·비도서자료·고서·전거통제·소장 정보용 포맷을 개발하고 KS로 제정하였다. 현재 전국도서관 958개관에서 목록정보 DB구축에 KORMARC를 사용하고 있다.

<표1. KORMARC 형식 이용 현황>

(단위 : 기관수)

	KORMARC	USMARC				KORMARC	USMARC			
	372	4	0	1	377	156	6	25	1	188
	296	2	4	0	302	118	171	8	2	299
	242	3	25	9	679	173	33	25	25	256
	910	9	29	10	958	447	210	58	28	743

작년에는 그동안 작성해 오던 도서·연속간행물·비도서자료·고서의 목록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통합서지용 KORMARC 형식을 KS로 제정하여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통합서지 형식과 전거통제 형식 시대를 열었다.

#### 2) 도서관 업무 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도서관의 정보경쟁력 향상과 모든 도서관이 도서관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따르는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면서 표준방식에 의해 업무를 정보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시스템 개발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근간으로 전국도서관의 수서·정리·대출·검색·자료관리·각종 통계 등의 업무를

TOTAL SYSTEM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KOLAS : Korea Library Automation System)을 전산기기의 규모별로 개발하여 전국도서관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1991년부터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을 UNIX 또는 PC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화 패키지(KOLAS)를 1991년에 개발한 이래 여러 차례의 기능을 보완·수정하여 전국 각종도서관 4,031개관에 보급한 바 있다. 또한 1999년에는 Windows 환경의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 II)을 개발하여 현재 420개 도서관에 배포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2. KOLAS 배포 현황>

○ KOLAS

(2006. 4월 기준)

	PC		Unix			
	337	99	87	40	94	657
	1,920	45	229	15		2,209
	412	55	92	24		583
	47		16			63
	458	2	58	1		519
	3,174	201	482	80	94	4,031

○ KOLAS II

(2006. 4월 기준)

34	65	13	32	42	11	23	23	5	14	35	40	39	10	20	14	420

3) 서지정보 표준화 및 국가자료 종합목록 DB구축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84년도에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고 목록정보가 중핵시스템이 되는 목록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고 1984년부터 납본되는 자료에 대한 목록 DB 구축사업을 시작하였다. 납본되는 자료의 목록정보를 이용하여 전국도서관에서 편목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쇄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서지정보 표준화사

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또한 1991년부터 1997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모든자료의 목록정보를 DB로 구축하여 현재 574만 책의 서지정보 268만 건을 구축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서지정보를 근간으로 전국도서관 소장자료 DB를 구축하고자 국가자료종합목록DB를 구축하고 인터넷으로 전국도서관 및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국가자료종합목록DB구축을 위하여 1차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문헌정보를 국가DB화하고, 2차로 전국 공공도서관 지역센터 구축 문헌정보를 수집하여 국가DB화 하였으며, 3차로 전국 공공도서관 구축 문헌정보를 수집하여 국가DB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 각 부처 행정자료실 문헌정보를 수집하여 국가DB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국가자료종합목록 구축방식으로는 1종의 자료에 대하여는 1개의 서지레코드를 작성하고 소장자료 내역을 소장정보에 기록하여 서비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 종합목록은 한국교육학술정보센터가 맡고 있고 구축한 DB를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시스템을 연계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표3. 국가자료 종합목록 참여도서관 및 구축 DB 건수>

			DB	DB
406	59	465	4,673,871	17,895,248

2004년부터는 신속하게 표준목록 및 목차DB를 구축하여 전국도서관과 서점, 출판유통업계에 제공하고자 한국 출판계의 대표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납본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1일단위로 납본을 받고 있다.

또한 목록 및 목차DB 구축 전문업체를 지정하여 목록 및 목차DB를 제공받아 DB 품질검사 및 표목, 전거통제를 수행하여 표준목록을 완성하고 인터넷으로 신가자료의 목록과 목차DB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주제별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관심분야를 조사하여 주제전문사서를 배치하고 해당주제의 자료에 대한 정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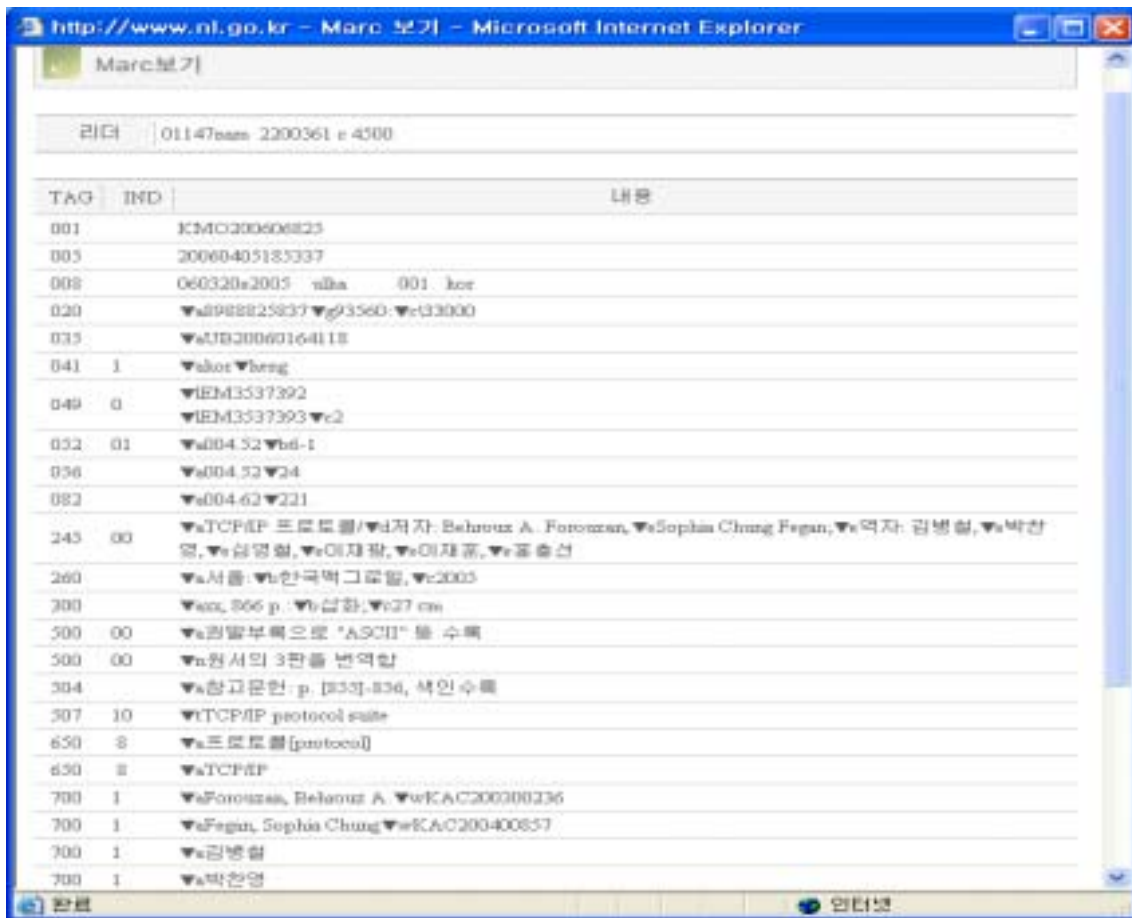
차후에는 그 분야의 주제정보서비스, 외국도서선정, 인터넷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직원들이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역량을 향상코자 하고 있다.

<그림1. 신착자료 화면>

○ 신착자료 메인화면



○ 마크 다운로드 화면



<표4. 신착자료 MARC 및 목차데이터 다운로드 신청기관 현황>

			/					
	268	179	64	5	4	70	7	597

#### 4) 목차 및 원문정보 DB 구축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한국에서 발행한 모든 자료를 납본 받아 후손에게 전달하는 국가대표도서관의 지위를 부여받고 한국에서 발행한 전체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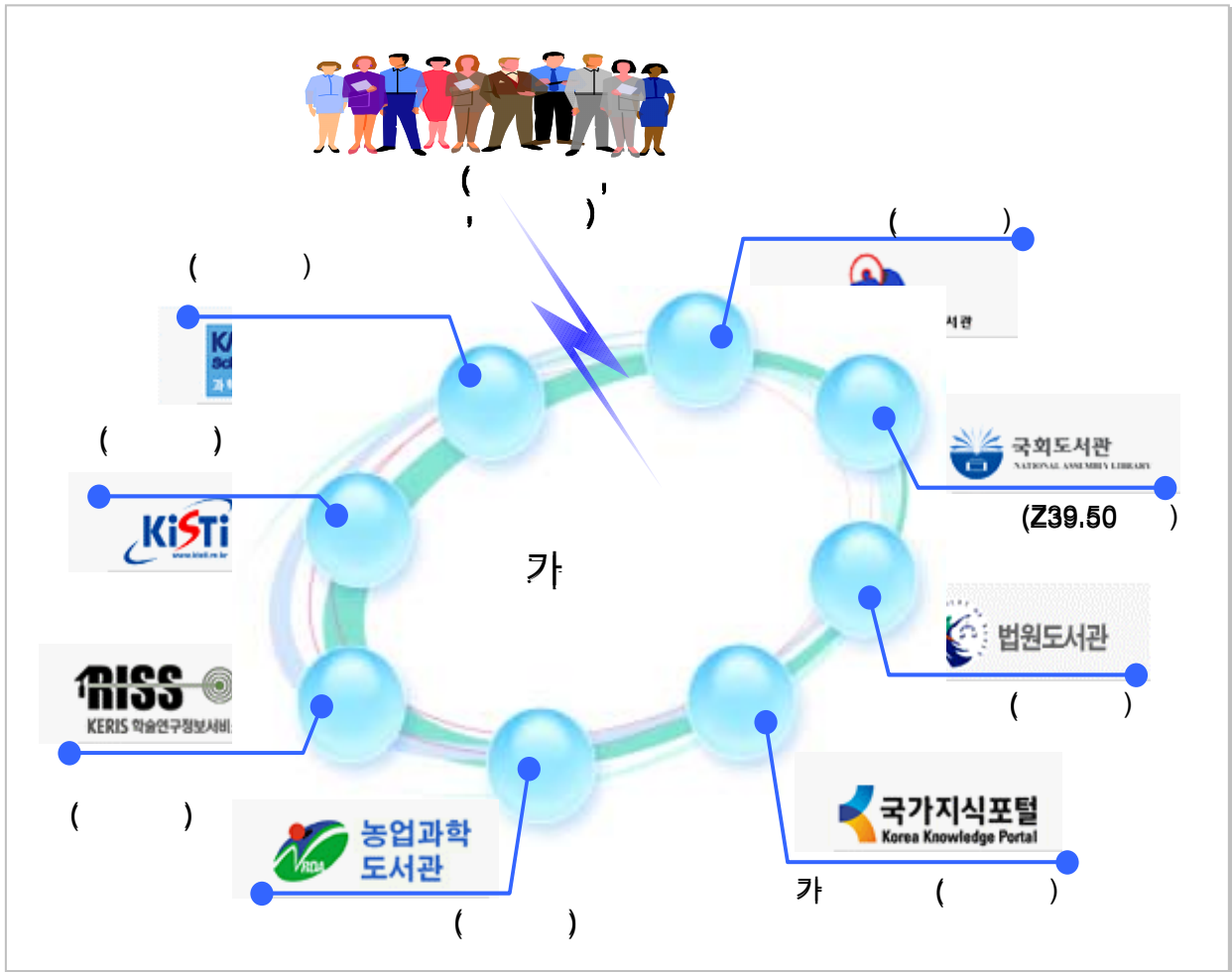
정보환경 변화에 따라 각 서점 등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료의 표지와 목차DB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어 자료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91년부터 PC통신을 통하여 목록정보를 제공하고 '96년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목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97년도에는 사이버공간에서 원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도서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주요도서관 7개관이 참여한 국가전자도서관([www.dlirary.go.kr](http://www.dlirary.go.kr))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지식포털([www.knowledge.go.kr](http://www.knowledge.go.kr))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통합검색을 실시하여 국가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책으로 간행된 자료 이외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그림2. 국가전자도서관 구성도>



<표5. 국가전자도서관 참여기관 구축DB 현황>

2005년 12월 현재

기관명	구축 현황	구축량	비 고
국립중앙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단행본(발행 5년이전)</li> <li>○ 조선총독부발간 한국관련자료</li> <li>○ 한국고전백선</li> <li>○ 한글판 고전소설</li> <li>○ 문화관광부 발간자료</li> <li>○ 고서</li> <li>○ 학위논문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4,210책 42,188,723면</li> <li>○ 11,230책 3,450,572면</li> <li>○ 615책 92,450면</li> <li>○ 915책 88,554면</li> <li>○ 1,442책 534,121면</li> <li>○ 92,006책 13,822,347면</li> <li>○ 7,816책 1,475,273면 등</li> </ul>	
	<b>소계</b>	<b>333,893책 93,702,151면</b>	
국회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행본</li> <li>○ 정부간행물</li> <li>○ 사회과학분야 학위논문</li> <li>○ 사회과학분야학술지</li> <li>○ 세미나자료</li> <li>○ 고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22책 1,800,458면</li> <li>○ 44,456책 14,482,838면</li> <li>○ 442,272책 37,458,813면</li> <li>○ 574,155건 12,801,546면</li> <li>○ 17,398건 1,170,724면</li> <li>○ 522책 75,560면</li> </ul>	
	<b>소계</b>	<b>1,133,897책 69,582,873면</b>	
법원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학술잡지 등</li> <li>○ 대법원판례(1948. ~ 2004.10.1.)</li> <li>○ 헌법재판소결정 (1989. ~ 2004.7)</li> <li>○ 하급심 판례(1948. ~ 2004.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2,549건 643,248면</li> <li>○ 1,683건 8,415면</li> <li>○ 683건 8,415면</li> <li>○ 7,952건 39,760면</li> </ul>	
	<b>소계</b>	<b>85,945건 813,145면</b>	
한국과학 기술정보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학술지/회의자료 논문기사</li> <li>○ 국가연구보고서</li> <li>○ 국내석박사 학위논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61,949건 5,610,000면</li> <li>○ 30,356건, 5,000,000면</li> <li>○ 28,992건, 2,900,000면</li> </ul>	
	<b>소계</b>	<b>621,297건 13,510,000면</b>	
한국과학 기술원 과학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위논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775권 1,768,920면 (Tiff)</li> <li>2,148권 215,000면 (PDF)</li> </ul>	
	<b>소계</b>	<b>20,923권 1,983,920면</b>	
한국교육 학술 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학회 및 대학발간 학술논문</li> <li>○ 국내석박사 및 해외취득 박사학 위논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60,000건 11,400,000면</li> <li>○ 260,000건 20,800,000면</li> </ul>	
	<b>소계</b>	<b>1,020,000건 32,200,000면</b>	
농촌진흥청 농업과학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진청 발간도서 및 농업고서</li> <li>○ 소속연구원 학위논문</li> <li>○ 농진청발간 시험연구보고서</li> <li>○ 농업관련학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77권 1,673,305면</li> <li>○ 1,052권 122,840면</li> <li>○ 79,828건 1,262,114면</li> <li>○ 72,791건 378,363면</li> </ul>	
	<b>소계</b>	<b>160,748권 3,436,622면</b>	
<b>총 계</b>		<b>3,376,703권(건) 215,228,711면</b>	

또한 2000년도부터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자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목차DB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2003년 이전 소장자료 119만 건의 목차DB를 구축하였다. 2004년부터는 납본되는 자료의 목록정보 DB구축 사업추진시 목차DB와 표지DB도 함께 구축하는 체계로 개편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목차DB와 표지DB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료찾기 화면에서 검색결과를 표출해 줄때 해당 자료의 표지DB를 현시하고 목차DB와 원문정보가 있으면 아이콘을 생성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표6. 국가자료 목차DB 구축 현황>

2005년 12월 현재

구 분	구축책수	비 고
1945년이전(조선총독부)	98,000책	
국내단행본	502,000책	
서양서	119,000책	
일본서	20,000책	
연속간행물	459,000책	
계	1,198,000책	



5) 전국도서관 전산기기 지원 및 디지털자료실 설치

도서관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망에 연결되는 도서관마다 그 역할에 맞는 적정규모의 전산기기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전국공공도서관의 정보망 형성을 위하여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1개 권역에 1개의 지역센터를 지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1993년에는 제1차로 10개 공공도서관 지역센터 중 4개 지역센터에 국산 전산기(TICOM II)를 지원하였고, 1995년도 나머지 6개 지역센터에도 지원하였다. 그리고 1995년부터 본격화된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자료를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1996년 삼성의 사회 환원기금을 이용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177개관에 멀티미디어 램을 설치하여 국민들이 공공도서관에서 디지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2001년부터는 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348개 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여 도서관을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중핵기관이 되게 하는 초석을 놓았다.

<표7. 전국 디지털자료실 설치 현황>

	25	22	11	8	8	8	4	55	27	21	31	24	31	30	37	6	348

<표8. 전국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지원내역>

<p><b>□ 하드웨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 버 : 자료관리용, 멀티미디어서비스용, WEB용, 보안용</li> <li>◦ PC 및 프린터 : 이용자용, 관리자용</li> <li>◦ 네트워크 : 스위칭 허브, 허브, 라우터, CSU/FDSU, 전용선 설치 등</li> <li>◦ 장애인정보화 물품지원 : 점자음성정보 단말기, 독서확대기, 오디오북리더, 화면낭독기, 화면확대기</li> <li>◦ 기 타 : AV 장비, 노트북 및 프로젝터 등 교육용 장비, 예약관리시스템, 인테리어, 책상, 의자 등</li> </ul>	
<p><b>□ 소프트웨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버 구동용 OS</li> <li>◦ 멀티미디어 콘텐츠 통합 및 관리시스템(CD-ROM, VOD, 원문 등)</li> <li>◦ 관리 지원용 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예약관리 S/W</li> <li>- 디지털자료실 관리 S/W : 하드디스크 관리, 보안 관리, 불법사이트 접속방지, 바이러스 예방/백신(서버용) 등</li> </ul> </li> <li>◦ 통합운영관리 S/W      ◦ 외국어(영한/일한)자동번역기</li> </ul>	

#### 4. 국가서지의 세계화

인터넷의 출현은 세계를 지구촌이 되게 하였다. 통신의 혁명은 곧바로 나라의 경계를 허물고 정보를 소유가 아닌 접근의 개념으로 변경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도서관에서도 이런 변화에 따라 기존의 작은 범위에서 연합하여 회원제로 운영되던 정보시스템이 지구촌을 단위로 운영하는 대규모 시스템으로 변환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이런 기류에 발맞추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하여 국내도서관에 제공하는 목록정보를 한국 자료를 소장하는 모든 도서관에서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UNI-CODE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 한국자료에 대한 목록을 사용할 때 필요한 목록정보의 로마나이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목록정보의 로마자 변환시스템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변환하여 기존에 개발한 UNI-CODE 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다.

#### 5. RFID를 이용한 도서관경영관리 시스템 도입

국립중앙도서관에서 '84년부터 전산기기를 도입하여 현재 모든 자료의 목록정보 데이터를 중핵으로 하는 자체 도서관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고 발전해오고 있다. '97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모든 자료에 대한 목록정보 DB구축을 완료하고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시스템으로 자료의 납본·자료조직·배가관리·검색·서지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실시간으로 이용되는 자료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여 도서관 경영을 혁신하고자 개가 되어 있는 모든 자료에 RFID TAG를 부착하였다. 2004년에는 이용자등록시스템을 개발하고 등록된 이용자에게는 관심주제를 선택하여 해당분야 자료의 목록정보와 목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국립중앙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서고에 배가되어 폐가제로 이용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대출신청을 이용자가 검색화면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서고에서 자료를 뽑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등록시 기록된 휴대전화번호 SMS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치희망도서관을 신청한 자료의 처리상황과 신청한 폐가제 자료의 이용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9개의 주제별 자료실을 설치하고 출판된지 3년이내 자료 30만 책에 대하여는 개가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경영정보시스템의 기본철학은 실시간으로 이용되는 자료와 이용자의 통계를 누적하여 도서관경영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폐가제로 이용되는 자료는 신청시 컴퓨터시스템에 기록된 내용으로 이용 자료를 파악할 수 있지만 개가제로 운영되는 자료는 직접 이용자가 서가에서 자료를 뽑아 이용하기 때문에 여의

하지 못했다. 그래서 개가제로 이용되는 자료실에 자료실대출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개가서가에서 이용할 자료를 색출하고 열람좌석에 오기 전에 서가 옆에 설치되어 있는 자료실대출기에 열람자료와 이용카드를 올려놓고 인지한 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근간으로 단기적으로 구입된 자료에 대한 이용평가와 이용자료에 대한 개·폐가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료실 확장 및 신규 자료실 개설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정기 및 일일 도서관 이용카드를 이용하여 도서관 입출입 및 대출신청, 비치도서신청에 활용하여 도서관 내에서 자료신청을 위한 양식의 기입을 폐지하고 on-line으로 자료를 신청하고 ID카드를 활용하여 이용하도록 개선하였다.

도서관 이용증은 정기와 일일 이용증을 제작하여 정기 이용증은 개인이 소지하고 이용하고 일일 이용증은 도서관 등록시 등록된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도서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도서관 이용증발급기에서 이용증을 발급받고 이용하고 있다.

<그림3. 휴대전화로 자료이용 가능여부 통보내용>



<그림4. 도서관 이용증>





<그림5. 무인 일일도서관 이용증 발급기>



<그림6. RFID 카드를 이용한 도서관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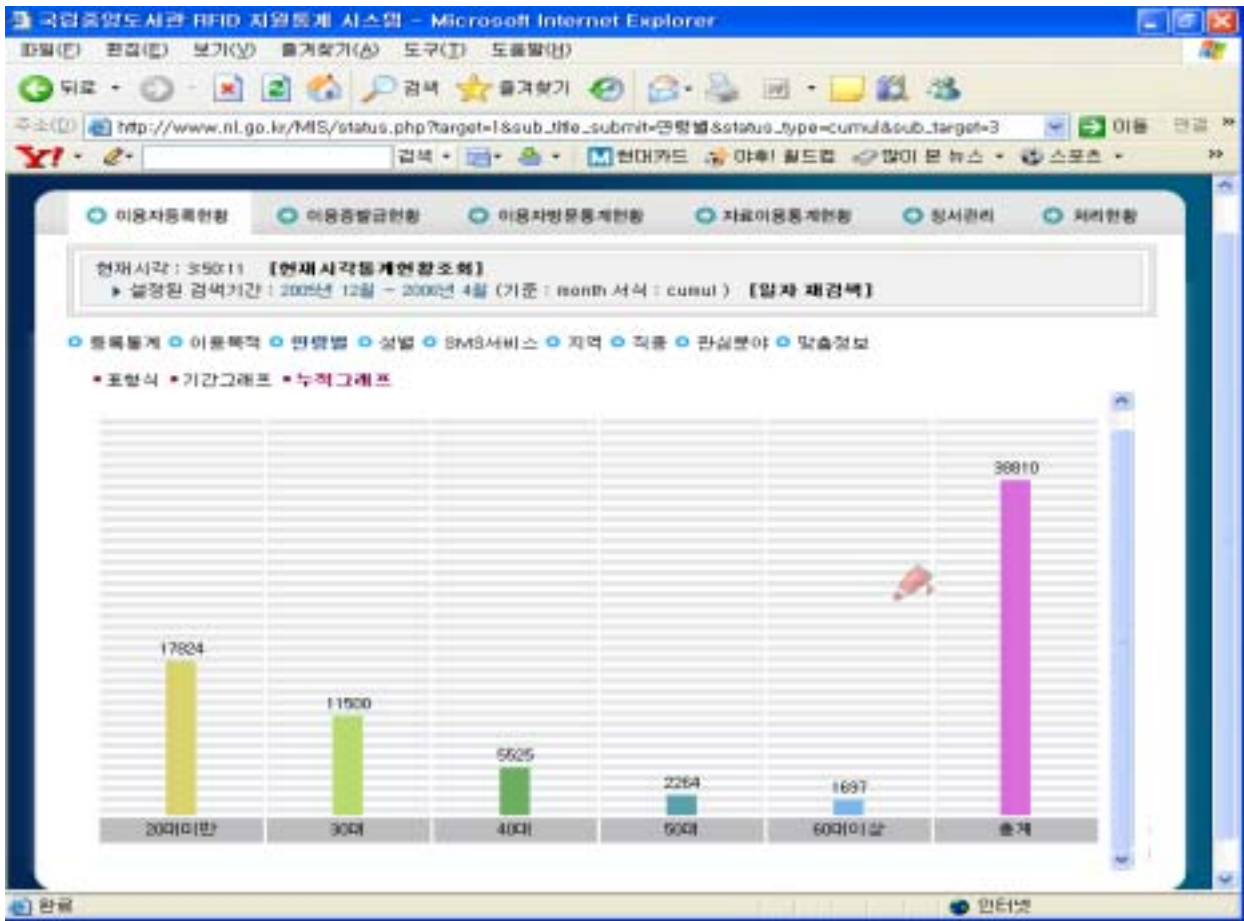
<그림7. 자료실 대출기>



<그림8. 국립중앙도서관 경영정보시스템>



<그림9. 국립중앙도서관 경영정보시스템 산출통계>



## 6.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급격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 요구의 증대와 디지털 출판물의 등장, 온라인 정보자원의 효율성증대, 미디어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세계 주요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자료에 대한 수집을 위하여 정부측에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출하였다. 2001년 국가적 차원에서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서 한국경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건립을 확정하였다. 2002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본관과 연계하여 서비스하고자 국립중앙도서관 앞마당에 국립디지털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다.



<표9. 국립디지털도서관 사업내용>

	- 11,500 ( 3 / 5 ) - : , DB , / - : , , , - : , , DB , , , - : , ,
	1,200
	2002 ~ 2008 ( 7 )
( )	1,208 ( 980 , IT 180 , 48 )

국립디지털도서관은 “고품질 디지털 정보자원의 통합과 개방서비스 환경제공”이라는 비전 아래 국내외에 산재된 고품질 정보자원의 통합적 관리, 정보자원 접근과 이용자 참여의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기술과 정보사회의 문화적 요소를 잘 융합하여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전략목표로는 다양한 유형의 NDL 장서의 통합관리 환경구축, NDL 장서에 대한 통합검색 포털제공, 인포메이션 커먼스를 통한 정보공유 환경조성, 고품질의 디지털 자원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빙 수행, 각종 디지털 시스템의 운영 프로세스 혁신 수행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10. 국립디지털도서관 조감도>



## 7. 국립중앙도서관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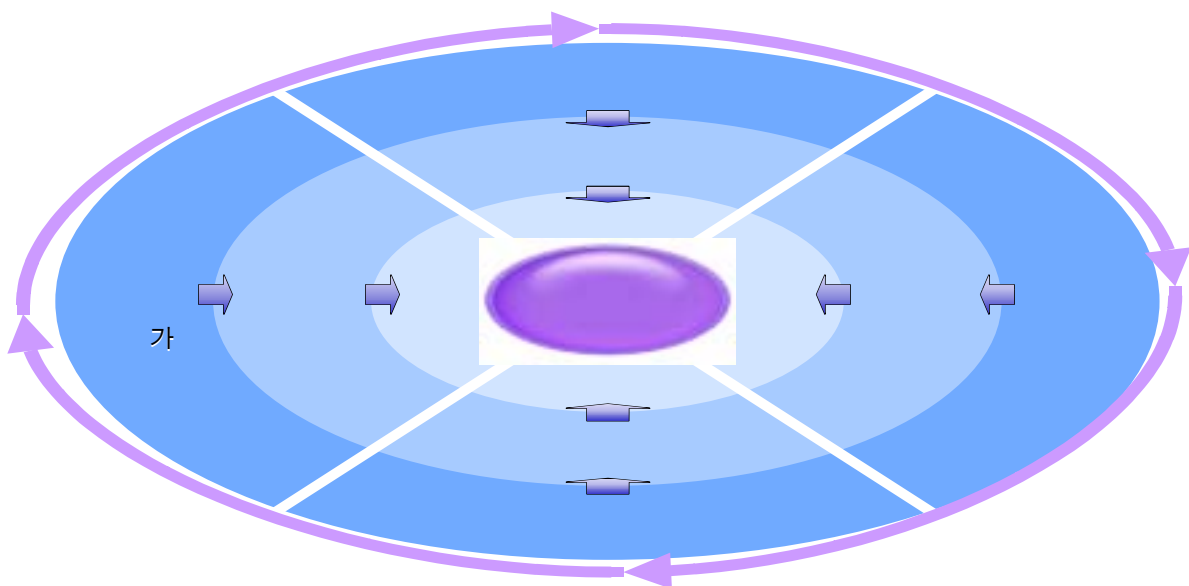
도서관은 유사 이래 인류의 사회문화적 장치로 존재·발전하여 왔다.

이런 정체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서관이 인류의 지적·정신적 기록문화를 수립·제공·보존·전수하는 구심체 내지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당위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그 대상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도서관일 경우에는 다른 모든 도서관이 추구해야하는 가치와 당위를 포함하되, 더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정체성과 역량을 필요로 한다. 요컨대 국가도서관은 자국에서 생산·유통되는 일체의 정보자료와 지적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는 지식보고로서의 위상, 자국민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리를 보장하고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는 정보서비스센터로서의 책무, 국내에 모든 도서관의 발전과 서비스를 지원·계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다른 국가도서관과 교류·협력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통하여 국민 문화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후대의 접근과 이용을 예비하는 타임캡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국가도서관은 고유한 존재가치와 위상, 사회적 역할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지향적 계획과 전략 등을 지속적으로 갈무리하고 핵심 역량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런 배경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작년 중장기비전인 국립중앙도서관 2010을 발표한바 있다.

기본원칙으로는 수집자료 및 제공서비스의 하이브리드화,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강화와 평등화, 대중밀착형 도서관과 독서문화의 생활화, 국가의 문화발전 및 경제성장의 동력화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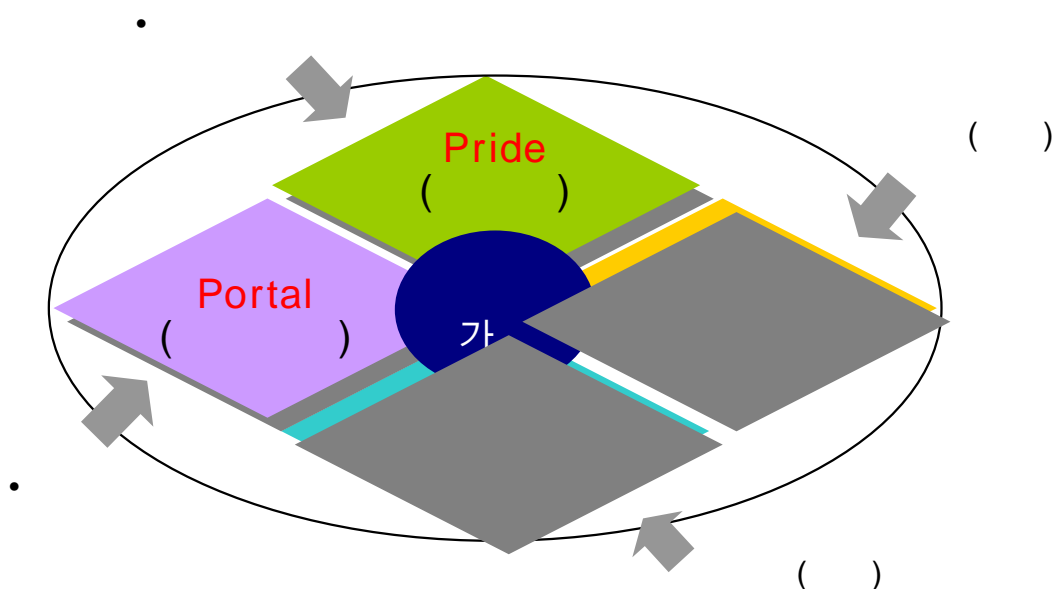
<그림11. 비전수립의 기본원칙과 수렴과정>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장기비전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2010년까지 달성해야 할 각각의 목표에는 4가지의 핵심가치를 투영시켰다.

이른바 4P로 지칭하는 핵심가치는 국가 지식정보의 자존심(National Pride), 정보 유통과 제공서비스(Information Provision), 도서관 정보서비스 정책과 연구(Policy and Research), 외연 확장과 국제적 관문 역할(Global Portal)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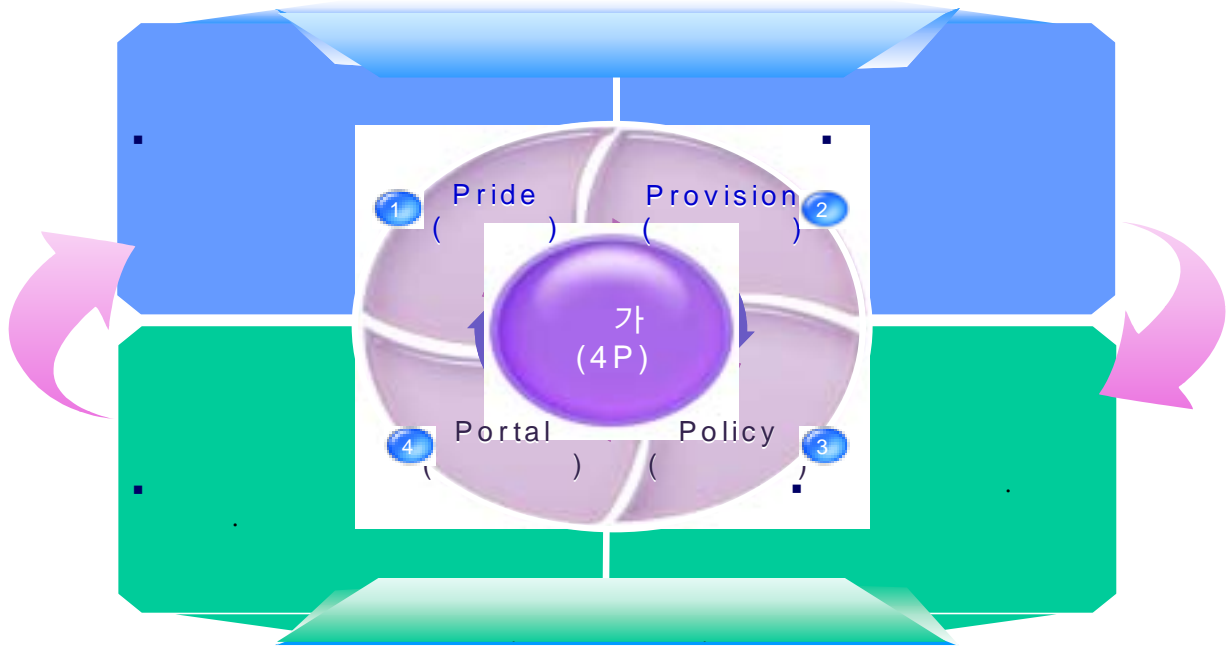
<그림12. 비전의 기본원칙과 핵심가치의 연계성>



상술한 4대 핵심가치의 우선순위와 연계성을 결합하여 구체화한 중장기비전이 추구해야 할 4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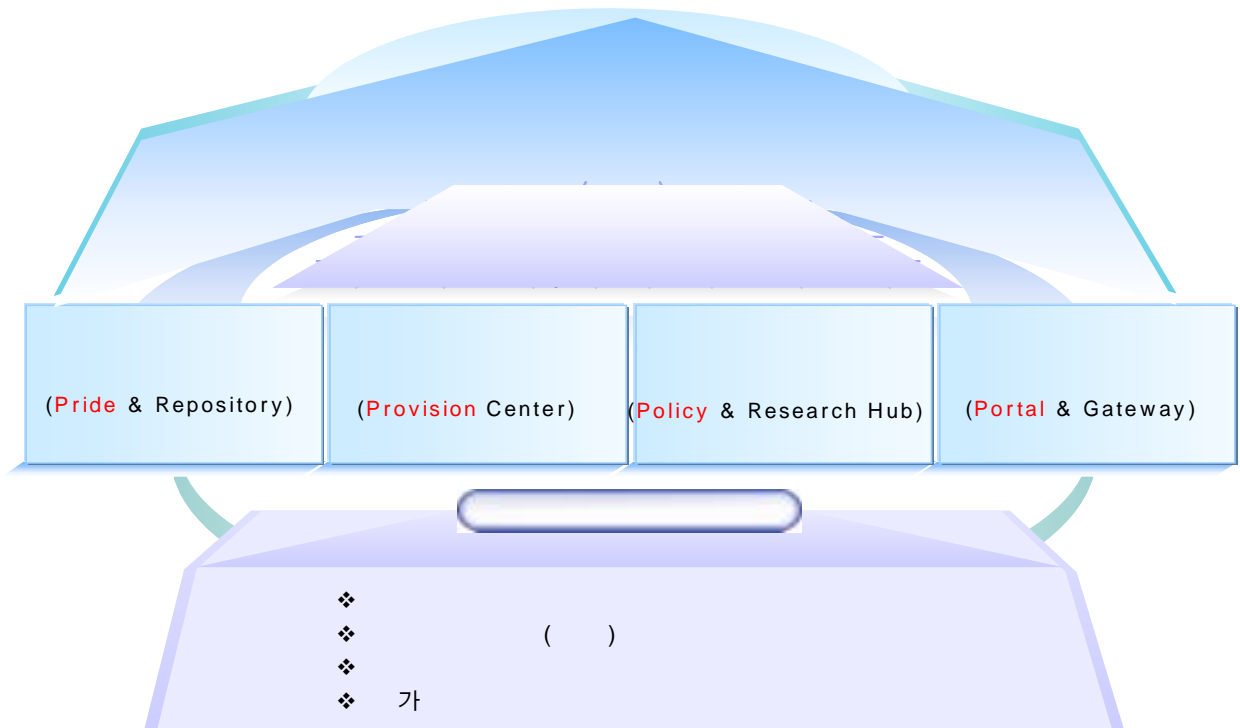
- 한국 지식문화 유산의 자존심과 보고(Pride and Repository of Korean Knowledge Heritages)
- 지식정보의 유통관리 및 제공서비스 센터(Distribution and Provision Center of Nat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
- 도서관 정책·연구의 구심체(Library Policy and Research Hub)
- 국내외 도서관의 교류·협력창구(Global Portal & Gatewa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그림13. 비전의 기본원칙과 핵심가치의 연계성>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추출한 핵심가치(4P)와 그들을 구체화한 4대 목표를 수렴한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비전을 지력강국으로 설정하였다.

<그림14. 국립중앙도서관 비전의 전모와 체계>



이를 중장기 비전의 명제로 상정한 이유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에서 생산된 지식정보를 총괄하고, 다른 도서관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보장할 때, 지식정보의 격차가 해소되고 도서관 및 독서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민의 지식정보 해득력이 제고되고 도서관 및 지식정보 중심의 문화수준이 높아질 때 지력강국이 가능할 것이다.

## 8. 결론

정보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기반에서 국민들이 도서관을 통하여 모든 정보를 얻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은 한국의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민들이 전국도서관을 방문하여서나 사이버공간에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한나라의 지적자산인 자료의 첫마디를 책임지고 있는 출판사와 지적자산의 집합체인 도서관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표준목록을 작성하여 전국 각종도서관은 물론이고 출판유통기관, 서점까지 활용하여 목록정보의 표준화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특히 서구 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하는 정보사회, 지식기반 경제, 디지털 유토피아는 지식정보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과 공유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도서관이 국제 조류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지식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권과 향유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사회, 문화국가, 디지털 유토피아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가 지식정보의 보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의 유용한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공하고 보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 정책개발과 계도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외 교류·협력의 거점이 되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21세기의 목록과 국가서지정보정책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5)
- 국립중앙도서관. 21세기 도서관이 나아갈 길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4)
- 곽동철.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 체제 구축 및 전략적 연계방안 연구 (서울 :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2003)
- 한상완. 지식정보사회와 지식정보의 활용 (서울 : 구미무역출판부, 2001)
- 박인웅. 2000. 사회발전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1(1) 23-23
- 현규섭. 정보사회와 지식이데올로기. (서울 : 인품아트, 2000)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8. 디지털도서관의 현재와 미래  
(서울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8)
- Sutherland, Sue. 2002. Passion, practice, partnership and politics : Marketing the  
future of public libraries, Australasian Public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15(2); 61-69.
- Borgman, Christine. 2000 From Gutenberg to the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Networked World.  
Cambridge(MA) The MIT Press, 2000.
- Hage, Christine L. 1999. Books, Bytes, Buildings and Bodies : Public Libraries  
in the 21st Century. American Libraries, 30(1)" 79-81